

## 유도무기 추진기관 발전방향

합동참모본부 무기체계조정관 신영순

정밀유도무기는 미래 NCW 상황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걸프전 이후 현재까지의 전쟁분석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유도무기 추진기관은 유도무기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본 발표에서는 유도 무기의 전반적인 발전추세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추진기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도무기는 일반적으로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사거리도 증가되면서 스텔스기능 및 초정밀도가 강조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저가화 문제도 중요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공기흡입식 추진기관은 기존의 Ramjet엔진에서 Scramjet, Combined Cycle 엔진으로 진화하면서 관련기술도 혁신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선진국은 이미 기술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극초음속 유도탄을 개발 중에 있으며 중국, 대만, 인도는 초음속 유도탄을 이미 베치·운용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호주, 프랑스 및 유럽연합은 민간 항공기용 극초음속 추진기관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일본도 초음속 공대함유도탄 개발에 이어 극초음속 여객기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무, 해성 및 천마 등의 유도탄을 개발하면서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갖춘 것은 사실이나 핵심기술면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일본식의 추진기관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일본은 무기체계의 양면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선진국과의 기술적인 격차를 해소하고 기술적 Option을 갖기 위해서 우리도 민·군 기술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